



2018년 3월 25일(제868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 지의 하느님, 어찌하여 지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종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믿고 계십니다. 단순히 ‘수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완벽합니다. 내가 어떤 기쁨 중에 있어도 혹은 내가 어떤 슬픔 속에 있어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그저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신했습니다. 본인의 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용했고 자신의 입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정의에 깨어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에 삶에 있어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을 것을 입으로 전달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지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엄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보여준 예언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만은 같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물으시고 실천하시고자 다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습관으로 인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또한, 주변의 눈치 때문에도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없이 본인을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사랑하기에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저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성(임미누벨) 신부
해군교육사(해군 교육사령부) 상당 주일

제 1 독 시

이사 50,4-7

회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시

필리 2,6-11

복음 본궤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마르 14,1-15,47

영 성 제 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를 살다

감실과 제대의 관계

감실은 성체를 모셔두는 자리입니다. 성체를 따로 모시는 까닭은 병자를 위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신자에게 또는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미사 때 신자들을 위해 충분한 제병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또한 미사 때 남은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감실은 이용됩니다. 물론 중세 이후 내려온 관습에 따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송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사성제로서의 성체성사야말로 미사 없이 성체께 바쳐지는 경신례의 원천이요 목적이다.” 「성체공경 훈령」 3항과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항에 나오는 이 선언은 성찬례로 대표되는 제대와 성체신심으로 대표되는 감실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감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그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파스카 신비를 신자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제대와 연계되지 않은 감실, 성찬례와 상관없는 감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감실이 신자들의 눈을 제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실의 본래 존재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당 안에서 감실의 위치는?

교도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각 성당의 구조와 적법한 지역 풍습을 고려

제대와 감실의 관계

하여 성당의 한 부분에 감실을 만들어 모셔 둔다. 감실은 참으로 고상하고, 잘 드러나고, 잘 보이며, 아름답게 꾸민 곳에, 또한 기도하기에 알맞은 곳에 마련하여야 한다.”(미사경본 총지침 314항)

“표지라는 뜻에서 볼 때 미사가 거행되는 제대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맞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감실은 아래와 같이 만드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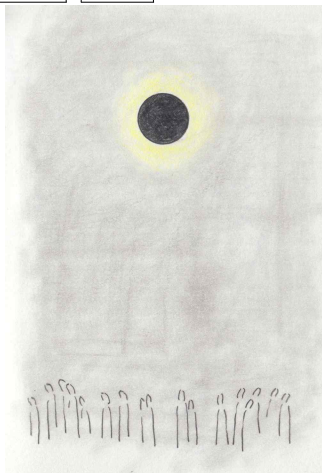
ㄱ) 거행에 쓰는 제대 위가 아닌 곳, 그리고 가장 알맞은 형태와 장소를 선택하여 제단 안에 설치한다. 더 이상 거행에 쓰지 않는 옛 제대 위에 설치할 수도 있다.(미사경본 총지침 303항 참조)

ㄴ) 또는 성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눈에 잘 띄며 개인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설치한다.”(미사경본 총지침 315항)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성체 모시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성당의 구조와 지역 풍습을 감안해서 성체는 제단에 모시든지 혹 성당의 뛰어난 자리에 적절한 장식을 갖추어 모신다.”(미사경본 총지침 276항, 1969년)

최정덕 F.히비에른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일식

모순과 모순의 세계
태양을 달이
잡아먹고
불의가 정의를
덮치고
세상이 평등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세상
모순과 모순의 세상
그래도 희망을 걸어본다.
달이 태양을
잡아먹었다 하여
그게 몇 분이나 되겠는가
기다립니다.
나는 태양이
다시 나오길.

상화이야기

이 사람을 보라



안토니오 지세리(1821-1891)
1871년 작

이 그림은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처벌 결과를 묻는 장면으로,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그림의 배경에 보면, 광장에 가득 찬 군중들과 심지어 맞은편 건물의 옥상까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보인다. 빌라도 주변에는 수석 사제들 (오른편)과 군인들 (왼편)도 함께 서 있는데, 빌라도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부인의 모습도 오른편에 보인다.

그림만으로도 관중들의 고통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두 손을 뒤로 묶인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 깊은 생각에 빠지신 듯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림은 이 순간 예수님이 겪으셨을 극도의 외로움을 탁월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철성 이승룡 신부

◆ 교구장 동정

- 강철(육군 50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25일(주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곳: 3월 29일(목)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때·곳: 3월 30일(금) 15: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때·곳: 3월 29일(목)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파스카 성야 미사
 때·곳: 3월 31일(토)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상유복성미사

때: 3월 27일(화) 11:00
 곳: 선봉대 성당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인원 : 1명
 접수 : 4월 20일(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